

서울시 미혼 여성 근로자의 딩크(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소득수준 차이를 중심으로*

Factors Affecting DINK Intention of Unmarried Female Workers in Seoul: Focusing on Income Level

오지영 Oh Jiyoung**, 서원석 Seo Wonseok***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DINK intentions of unmarried working women in Seoul who are engaged in employment activities, classified by income level,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ingle female workers expressed doubts about childbirth even if they got married. Second, the debt of unmarried female workers was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DINK intentions. Third, regar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partment dwelling and homeownership emerged as key determinants of DINK intentions. In particular, the tenure type significantly affected the high-income group, while the housing type significantly affected the low and middle income groups. Fourth, safety and care in life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lowering DINK intentions. Fifth, while satisfaction with commuting conditions and working hours increased the willingness to have children, higher job quality among middle income female workers paradoxically increased DINK intentions. Sixth, work-life balance, financial satisfaction, and the possibility of social achievement and upward mo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INK intentions of middle and high income single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for comprehensive support for young childbearing families, job retention after childbirth, flexible working hours, and housing support.

Keywords: Fertility, DINK, Female Worker, Unmarried Women, Income Level, Binary Logistic Model

I. 서론

출산은 인류라는 종(Species)의 보존과 관련된 생태계적 영향력과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의미 있고 고귀한 행위이다. 인류의 발전에도

출산은 영향을 미쳤는데, 인간이 수렵과 채집의 시대를 지나 농경사회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높은 출산율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Howell 1976).

고대에 만들어진 빌렌도르프의 비너스(Venus of Willendorf)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다산은 풍요의 상징으로 여겨졌고, 농경사회에서 부유한 계층

* 이 논문은 2023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Ph.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 Primary Author | jyidle@gmail.com

***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교신저자) | Prof.,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Chung-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 wseo@cau.ac.kr

일수록 더 많은 자녀를 두었다(전중환 2012). 이처럼 인간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출산은 노동 생산성 등에 영향을 주며 사회·경제적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2022년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0.78명으로 떨어지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OECD 2024).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 0.72로 더욱 낮아져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하였다(통계청 2024).

이와 같은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국가소멸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김혜진, 서원석 2022).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40년까지 국내 GDP가 연평균 약 1.2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유진성 2023).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축소, 재정 부담의 증가, 투자 감소, 가계경제 위기 등과 같은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데,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는 저출산 문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까지 출산과 결혼에 집중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하고, 결혼 이후 임신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연구 방향은 타당하다. 하지만 임신과 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인하여, 결혼이 꼭 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로 인하여 출산과 양육이 개인의 성취에 대한 높은 기회비용으

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Galor and Weil 1996)도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처럼 자기 삶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성향은 결혼 후 자발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덩크(DINK: Double Income No Kids)와 같은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장유경, 김현주 2021).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연구 방향으로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 왜 출산하지 않으려는지 밀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주요 요인으로 양육비용 부담이 손꼽힌다는 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에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 중 하나인 임금과 출산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는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남성은 임금 분위가 올라갈수록 자녀가 있을 비율과 자녀의 수가 우상향하는 반면 여성은 U자형으로 나타난다(함선유 2020). 이는 여성의 출산에 있어서 소득 특성 등의 경제적 요인, 그리고 그와 관련한 계층이동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저출산 문제는 여성의 결혼과 출산 의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는 사회적 요인과 소득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2023년 기준 여성 경제활동인구 249만여 명으로 단일 도시 중 가장 많아 출산과 관련된 미혼 여성의 의향이 인구구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현상을 고려해 서울에서 거주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미혼 근로 여성의 소득수준별 결혼 후 비출산 의향(DINK)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해 2023년 서울서베이 조사를 바탕으로

이항로지스틱모형(Binomial Logistic Model)을 사용한다. 본 실증분석을 통해 앞으로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될 여성 근로자들의 결혼 이후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요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파악하여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출산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는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 부동산, 근로 여성을 중심으로 출산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 또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이나 경제적 특성과 출산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태완, 이경재, 이성우(2024)는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및 16개 광역시·도의 경제성장 수준과 지역 간 경제력 차이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군구 수준에서는 지역내총생산이 출산율 상승에 정(+)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라 지역내총생산과 자가변화분의 지역 격차 확대가 발생하면 출산율에 부(-)의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휘정, 김경민(2022)은 합계출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도시환경이 여성의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로 높은 육아 지원, 다른 지역 대비 월등히 긴 육아휴직 사용기한, 세종시의 직주근접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꼽혔다. 또한 소득 대비 낮은 주거비 부담과 안전한 보행환경 등을 갖춘 도시환경 역시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게 하는 요인임

을 확인하였다.

김준일(2021)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출산 기간까지 계속 거주한 여성과 이주 후 출산한 여성을 구분한 뒤, 지역 환경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지역 환경은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출산율 증가 영향의 약 65%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세대를 해당 지역으로 불러들이는 효과에 의한 것으로 실제 출산율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이주로부터 6년 차까지 증가하다 이후 정체됨을 밝혔다.

박관태, 전희정(2020)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그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지역 특성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대도시보다 농촌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지만 반대로 조출생률은 대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대도시에서는 주택매매가격, 공공임대주택 비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중소도시는 주택매매가격과 취업률이, 농촌에서는 사회복지예산 비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비율, 의료시설의 수가 있었다.

다음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출산을 다룬 연구들은 주거 특성과 주택 가격 등을 중심으로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다은, 서원석(2021)은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의 기혼여성을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무자녀 가구는 자가나 전세,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가 나타났으나, 유자녀 가구는 주택 유형 및 점유 형태의 차이가 출산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 유무에 구분 없이 모두 출산 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택점유 형태를 중심으로 출산율과의 관계를 분석한 김동현, 전희정(2019)의 연구에 따르면 주택 마련에 있어 부모의 지원이 높은 경우, 총 계획 자녀 수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가 마련에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비율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수와 총 계획 자녀 수가 증가하였으나, 자가 구입에 부부의 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할수록 총 계획 자녀 수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주거 특성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도 있었는데, 박서연(2019)은 거주지역 특성과 주거 특성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자가 주택인 경우와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인 경우, 그리고 주택 거주를 위한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출산계획에 양(+)의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평균 주택가격과 사교육비의 증가는 출산계획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함께 확인하였다.

이다음, 서원석(2019)은 주거빈곤 및 주거비 부담과 결혼·출산의 관계를 가족 형성기와 확장기 가구를 중심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 유형을 불문하고 주거빈곤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과 출산 모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배호중, 한창근(2016)은 주택자산에 초점을 맞춰 결혼 이후 첫 출산까지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부부의 나이가 많고, 결혼 시점에서 남편의 소득 수준이 높으면 출산의 시기가 빨라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혼을 시작할 때 그 외의 경우에 비해 자녀를 일찍 출산하며, 거주 주택의 가격이 높을수록 자녀의 출산 시기가 빨라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근로와 출산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근로조건이나 환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김현동(2021)은 여성 배우자를 전업주부,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그들의 경제적 역할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유형에서 첫 자녀 출산 확률은 전업주부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첫 자녀 출산 이후 추가 출산 확률에 있어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유형의 근로 여성이 전업주부보다는 낫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김사현(2009)은 여성의 고용조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시간제 근로 여성보다 전일제 근로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높음을 밝혔다. 그리고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여성은 다른 직종의 근로 여성에 비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 출산휴가는 출산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육아휴직의 제공은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결과도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주거 및 거주 환경, 지역 특성, 결혼 가구의 경제적 특성, 여성의 근로 환경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는 출산의 주체인 여성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 결혼과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의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이후의 출산 의향(특히 비출산하고자 하는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면,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미혼 여성 근로자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통근, 워라밸(Work-Life Balance), 개인의 성취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중심으로 결혼 이후 비출산을 원하는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III. 분석의 틀

1. 변수설정

본 연구는 여성의 딩크(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3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서울시의 대표 통계조사 자료로 서울의 도시 특성과 서울시민의 생활상을 측정한 자료이다. 특히 2023년 자료부터 결혼 후 출산 의향 항목이 생성되어, 본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적합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분석을 위한 표본 설정으로 먼저 출산이 가능한 나이인 20에서 49세까지의 여성을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가임여성으로 보고 출산을 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10대의 출산은 흔치 않은 일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년 서울시 연령별 분만 통계에서도 10대의 출산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가임여성의 나이를 20에서 49세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가임여성 중, 서울에 거주함과 동시에 서울로 통근하는 여성 근로자를 선정하여 총 1,452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해당 문항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까지의 리커트척도(Likert Scale)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보통'이라는 중간점이 포함되어 있다. 리커트 척도에서 중간점은 응답자의 태도에 중간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 하지만 중간점이 존재할 경우, 주어진 질문의 최소 기준을 충족할 만한 응답을 찾고자 별다른 고민 없이 중간점을 선택하게 된다(Krosnick 1991;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이렇게 되면 결국 중간 응답이 과도하게 많아져 응답자의 진정한 의사와 태도를 측정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다(장덕현, 조성겸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명확한 출산 의향을 확인

하기 위해 '보통' 응답을 제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1)'와 '별로 그렇지 않다(2)'를 출산 의향으로, '대체로 그렇다(4)'와 '매우 그렇다(5)'를 비출산 의향으로 코딩한 후 변수화하였다.

독립변수는 기존 선행연구를 통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혀진 변수들을 연구 목적에 알맞게 선정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크게 개인특성, 주거환경특성, 교통통근특성, 근로특성, 여가특성, 성취특성으로 <표 1>과 같이 구분하였다. 개인특성에는 서울거주(서울 거주기간), 1인가구, 반려동물, 가구부채, 가구소득, 학력, 연령을 포함하였다.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50만 원 미만은 1, 1,000만 원 이상은 21로, 각 구간을 50만 원 단위로 구분한 범주형 변수를 사용하였다. 학력 변수도 1은 중학교 이하, 4는 대학원 이상인 범주형 변수로 코딩하였다.

주거환경특성은 주택 유형과 점유 유형, 거주지 아파트 가격, 공원 등 녹지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주거지역 보행환경, 야간보행 안전도를 사용하였다. 거주지 아파트 가격변수는 2023년의 행정구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하위지역(성북, 은평, 관악, 노원, 강북, 구로, 도봉, 중랑, 금천), 중위지역(영등포, 동작, 중구, 강동, 종로, 서대문, 강서), 상위지역(강남, 서초, 용산, 송파, 성동, 광진, 양천, 마포) 3개의 분위로 구분해 범주형으로 구성하였다.

교통통근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는 버스와 지하철 만족도, 교통수단 이용 시 교통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배려 정도, 평균 통근 시간, 통근환경 만족도, 통근지역, 근무지역이 있다. 통근 시간 변수는 응답자의 통근 시간을 30분 이하는 1, 1시간 이하는 2, 1시간 초과를 3으로 설정하였다. 통근지역은 거주지역과 동일한 구로 출근을 1, 그 외를 0으로 코딩하였으며, 근무지역은 통근지역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이면 1, 기타 경우를 0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 여가, 성취특성에 속한 변수들은 근로시간, 직업 만족도, 여가시간, 여가생활 만족도, 건강 상태, 재정 상태,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 사회 성취의 본인 노력이 있다. 근로시간 변수는 법정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이내인 경우는 1, 그 외의 경우는 0으로 코딩하였다. 여가시간 변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1,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0으로 변환해 사용하였다.

표 1 변수구성

변수		단위	변수설명	
종속변수	DINK 의향	명목	결혼 후 비출산 의향(1=비출산, 0=출산)	
개인특성	거주기간	년	응답자의 서울 거주기간	
	1인가구	명목	1인가구 여부(1=1인가구, 0=그 외)	
	반려동물	명목	반려동물 소유 여부(1=있음, 0=없음)	
	가구부채	명목	가구의 현재 부채 유무(1=있음, 0=없음)	
	가구소득	범주	가구의 월 평균소득(1=50만 원 미만, 21=1,000만 원 이상)	
	학력	범주	최종학력(1=중학교 이하, 2=고졸 이하, 3=대졸 이하, 4=대학원 이상)	
	연령	세	응답자 나이	
주거환경특성	주택 유형	단독	명목	1=단독주택, 0=그 외
		연립 등	명목	1=연립, 빌라, 오피스텔 등, 0=그 외
		아파트	명목	1=아파트, 0=그 외
	주거 형태	자가	명목	1=자가, 0=그 외
		월세 등	명목	1=월세 및 기타, 0=그 외
		전세	명목	1=전세, 0=그 외
	가격	범주	거주지 아파트 가격 수준(1=하위지역, 2=중위지역, 3=상위지역)	
	공원녹지	리커트	공원 등 녹지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문화시설	리커트	문화시설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보행환경	리커트	보행환경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야간안전	리커트	야간보행 안전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교통통근특성	버스	리커트	버스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지하철	리커트	지하철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교통약자	리커트	교통수단의 교통약자 배려 정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통근시간	범주	평균 통근 시간(1=30분 이하, 2=1시간 이하, 3=1시간 초과)	
	통근환경	리커트	통근환경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통근지역	명목	1=거주지역과 동일한 행정구로 출근, 0=그 외	
근로특성	근무지역	명목	1=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0=그 외	
	근로시간	명목	주당 평균 근로 시간(1=40시간 이내, 0=그 외)	
	직업만족	리커트	직업 만족도(1= 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여가특성	여가시간	명목	여가 시간(1=충분, 0=불충분)	
	여가생활	리커트	여가생활 만족도(1=매우 불만족, 5=매우 만족)	
	건강상태	리커트	0=가장 불안한 상태, 10=가장 행복한 상태	
	재정상태	리커트	0=가장 불안한 상태, 10=가장 행복한 상태	
성취특성	계층이동	리커트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1=매우 낮다, 5= 매우 높다)	
	사회성취	리커트	사회 성취에서 본인노력(1=전혀 동의 안 함, 5= 매우 동의)	

2. 기초통계 분석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수의 기초통계 결과는 <표 2>와 같다. 종속변수인 결혼 후 출산 의향의 평균값은 0.577로 비출산과 출산 의사가 유사한 것을 확인하

였다. 서울 거주기간은 최소 0.58년에서 최대 49년이고, 평균 거주기간은 약 23년으로 나타났다. 1인가구의 비율은 약 42.7%, 반려동물을 보유한 응답자는 약 26.2%, 가구 부채가 있는 경우는 약 35.1%였다. 가구소득을 보면 최솟값은 100~150만 원 미만인

표 2 기초통계 결과

변수		전체 (N: 1,452)					하위소득 (N: 301)	중위소득 (N: 808)	상위소득 (N: 343)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VIF	평균	평균	평균
종속변수	DINK 의향	0	1	0.577	0.494	-	0.588	0.574	0.574
개인 특성	거주기간	0.58	49	23.075	11.360	1.37	21.108	22.814	25.414
	1인가구	0	1	0.427	0.495	2.35	0.259	0.429	0.569
	반려동물	0	1	0.262	0.440	1.05	0.236	0.254	0.303
	가구부채	0	1	0.351	0.478	1.12	0.415	0.350	0.297
	가구소득	3	21	10.145	4.105	2.07	9.924	10.115	10.408
	학력	1	4	2.943	0.290	1.06	2.850	2.944	3.020
	연령	20	49	32.689	5.899	1.44	29.319	32.639	35.767
주거 환경 특성	단독	0	1	0.258	0.437	Reference	0.246	0.282	0.210
	연립 등	0	1	0.350	0.477	1.40	0.375	0.335	0.362
	아파트	0	1	0.393	0.488	1.63	0.379	0.382	0.429
	자가	0	1	0.382	0.486	1.72	0.472	0.375	0.318
	월세 등	0	1	0.237	0.425	1.46	0.203	0.261	0.210
	전세	0	1	0.382	0.486	Reference	0.326	0.364	0.472
	가격	1	3	1.926	0.821	1.21	1.934	1.906	1.968
	공원녹지	1	5	3.544	0.757	1.18	3.512	3.567	3.519
	문화시설	1	5	3.638	0.676	1.29	3.575	3.686	3.583
	보행환경	1	5	3.548	0.689	1.31	3.535	3.535	3.589
야간안전	1	5	2.974	1.059	1.16	2.767	3.012	3.064	
교통 통근 특성	버스	1	5	3.895	0.724	1.53	3.827	3.957	3.810
	지하철	1	5	3.898	0.789	1.45	3.887	3.902	3.898
	교통약자	1	5	3.539	0.825	1.22	3.435	3.546	3.615
	통근시간	1	3	1.559	0.596	1.64	1.415	1.589	1.615
	통근환경	1	5	3.512	0.788	1.31	3.512	3.519	3.499
	통근지역	0	1	0.521	0.500	1.59	0.605	0.494	0.510
근로 특성	근무지역	0	1	0.239	0.427	1.20	0.216	0.219	0.306
	근로시간	0	1	0.733	0.443	1.10	0.741	0.776	0.624
	직업만족	1	5	3.528	0.630	1.20	3.342	3.543	3.653
여가 특성	여가시간	0	1	0.386	0.487	1.16	0.439	0.355	0.414
	여가생활	1	5	3.452	0.7088	1.29	3.339	3.474	3.499
	건강상태	0	10	7.379	1.350	1.56	7.103	7.379	7.621
	재정상태	0	10	6.320	1.512	1.48	5.887	6.288	6.773
성취 특성	계층이동	1	5	3.183	0.833	1.10	3.176	3.207	3.134
	사회성취	1	5	3.281	0.923	1.20	3.140	3.309	3.338

구간이었으며, 최댓값은 1,000만 원 이상 구간이었으며, 평균값은 450~500만 원 구간에 속하였다. 응답자의 학력은 중학교 이하에서 대학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학력은 대졸 이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20에서 49세까지 분포하고 있었고, 평균 연령은 약 32세였다.

주택 유형에서는 단독이 25.8%, 연립 등 기타 주택 35%, 아파트 39.3%의 분포를 보여주었다. 주택점유 유형은 자가 38.2%, 월세 등 23.7%, 전세 38.2%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 아파트 가격은 중위지역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등 녹지 만족도, 문화시설 만족도, 버스 만족도, 지하철 만족도, 교통약자 배려는 다소 만족에 가깝게 나타났고, 야간보행 안전도는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근 시간의 평균은 30분 이상 1시간 이하인 구간에 가까웠으며, 통근환경 만족도는 보통 수준, 통근지역이 거주 구와 동일한 지역에 속하는 비율이 약 52.1%였다. 근무지역이 강남 3구인 경우가 약 23.9%였고,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인 경우가 73.3%, 직업 만족도는 평균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충분한 상태가 38.6%, 여가생활 만족도는 보통 수준, 건강 및 재정 상태는 보통보다 약간 나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과 사회 성취에서 본인의 노력 중요성은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소득수준별로 변수의 평균값 차이를 확인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변수에서 소득수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차이가 있는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종속변수인 DINK 의향은 하위소득에서 미세하게 큰 값(58.8%)을 지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개인 및 주거환경특성 변수를 보면, 하위 소득보다 상위소득에서 1인가구 비율이 약 2배 높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이 독립가구 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가구부채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큰 값을 가지고 있었다. 야간 안전 만족도의 경우 하위소득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 또한 모든 소득 유형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소득은 전세, 중위와 하위소득에서는 자가 거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통통근, 근로, 여가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들인 거주기간, 가구소득, 학력, 연령, 통근시간, 직업만족, 건강상태, 재정상태 및 사회성취의 경우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로지스틱 모형에서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를 지닌 변수들의 신뢰도를 감소시키고, 선택 행동에 대한 기여도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류시균 2008). 다중공선성 분석 결과 모든 변수에서 3 미만의 값이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3. 분석모형

미혼 여성 근로자의 결혼 후 출산하지 않겠다는 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 범주형 변수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종속변수가 범주형인 데이터는 선형회귀모형의 가정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가정을 따르는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서원석 2019; 이다은, 오지영 2024). 종속변수는 출산(0)과 비출산(1)이라는 이분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항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항로지스틱모형은 종속변수의 비선형을 가정하므로 확률에 자연로그를 취한 변환값을 사용하고,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게 된다(이소영,

윤지영, 최혜진 2018; 강상준 2023). 즉 이항 로지스틱모형은 독립변수들이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의 값 1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아래 <식 1>과 같이 표현된다(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12).

$$\begin{aligned}
 P(y = 1 | X_1, \dots, X_p) &= \pi(X_1, \dots, X_p) \\
 &= \frac{\exp(\beta_0 + \beta_1 x + \dots + \beta_p x_p)}{1 + \exp(\beta_0 + \beta_1 x + \dots + \beta_p x_p)} \\
 &= \frac{\exp(z)}{1 + \exp(z)} \quad < \text{식 1} >
 \end{aligned}$$

IV. 실증분석 결과

1. 모형구성 및 적합도 검정

본 연구는 서울로 통근을 하는 미혼 여성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소득수준을 하위, 중위, 상위로 구분한 뒤 이를 각각 모형화하였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353만 원, 중위소득 267만 원,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인 250만 원 미만을 하위소득 구간, 중위임금 수준인 250만 원 이상 350만 원 미만인 구간을 중위소득 구간, 350만 원 이상인 구간을 상위소득 구간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체모형과 세 개의 소득수준 모형(하위소득모형, 중위소득모형, 상위소득모형) 등 총 네 개의 모형을 실증분석에 적용하였다.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Pseudo R²* 값은 0.148~0.333으로 나타났다. 로지스틱모형에서도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결정계수 *R²* 값을 통해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할 수 있지만, 종속변수가 범주형 변수이기 때문에 회귀모형의 중요한 가정인 오차의 등분산성

(Homoscedasticity)을 만족하지 않는다(홍세희 2019). 따라서 로지스틱모형의 *R²* 값은 종속변수의 값에 따라 변화하므로 결정계수를 통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어렵다(Cohen, Cohen, West and Aiken 2003). 또한 로지스틱모형의 결정계수인 *R²* 값은 대체로 작은 값을 가지므로 결정계수가 모형설정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단지 참고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의존하지 않아도 무방하다(Hosmer and Lemeshow 2000; 김순귀 2022).

*Pseudo R²*과 더불어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로그가능도(Log-likelihood)의 경우 절편(Intercept)만을 포함한 모형 값보다 낮은 값으로 분석되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체모형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결혼 후 비출산(DINK)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들은 대체로 모든 특성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인특성의 경우 1인 가구일 때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에서 발표한 여성 1인 가구의 생활조사 리포트자료를 보면, 1인 가구 중 청년층(19~34세)에 속하는 여성은 남성에 비하여 자기돌봄과 건강 유지에 할애하는 활동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 1인 가구가 여가 및 배움을 통한 본인 삶의 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생활 특성으로 인하여,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희생보다 개인 삶의 만족을 향상할 수 있도록 DINK 의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부채가 존재할 때도 비출산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양육비용과 관련이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 평균

표 3 전체모형 실증분석 결과

변수		전체모형	
		Coefficient	Odds
개인 특성	거주기간	-0.005	0.995
	1인가구	0.579***	1.784
	반려동물	-0.080	0.923
	가구부채	0.224*	1.251
	가구소득	0.007	1.007
	학력	-0.031	0.969
	연령	-0.012	0.988
주거 환경 특성	단독	0.352**	1.436
	연립 등	0.437***	1.548
	아파트	Reference	
	자가	-0.348**	0.706
	월세 등	-0.128	0.880
	전세	Reference	
	가격	0.092	1.096
	공원녹지	0.036	1.037
	문화시설	0.029	1.029
	보행환경	0.021	1.021
교통 통근 특성	야간 안전	-0.160***	0.852
	버스	0.307***	1.360
	지하철	-0.041	0.960
	교통약자	-0.233***	0.792
	통근시간	-0.086	0.918
	통근환경	0.051	1.052
근로 특성	통근지역	-0.551***	0.576
	근무지역	0.245*	1.278
	근로시간	-0.378***	0.685
여가 특성	직업만족	0.034	1.034
	여가시간	0.367***	1.443
	여가생활	0.164*	1.179
	건강상태	-0.095*	0.909
성취 특성	재정상태	0.075*	1.078
	계층이동	0.230***	1.259
	사회성취	0.109*	1.115
N		1,452	
Log-Likelihood (Intercept-only)		-904.213 (-989.102)	
Pseudo R ² (Nigelkerke)		0.148	

주: ***p<0.01, **p<0.05, *p<0.1.

금액은 약 65만 원 수준으로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은 약 26.9%였다(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진 외 2023). 이는 가구소득의 약 1/4을 추가 지출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자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채가 있는 가구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비출산 의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연구 또한 자녀와 관련한 직접 및 간접 비용 증가가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Becker and Robert 1988; Sleebos 2003; Gauthier 2007).

주거환경특성에 포함되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아닌 유형에 거주할 때, 자가 거주에 비해 임차(전세)일 때 출산 의향보다 DINK를 더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선행연구 역시 같은 맥락의 결과(이다운, 서원석 2021)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양호한 주거환경과 거주 안정성이 확보될 때, 결혼 후 출산 확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결과는 전세와 자가 유형 간의 상대적 비교 결과이므로 결혼 후 출산 의향과 주거형태(자가보유물 등) 간의 세부적 관계를 파악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야간보행의 안전도가 높아질수록 DINK 의향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지 주변의 안전한 환경이 출산 의향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교통통근특성에서 직주근접(통근지역)은 결혼 후 출산을 더 고려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육 및 가사 책임감이 여성의 통근 시간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Lee and McDonald 2003)이라는 점에서 통근 시간이 짧을수록 여성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다만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DINK 의향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했는데, 이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통근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요인(진은애, 진장익 2017; 전해란, 전명진 2020; 유동균, 정현, 2022)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운 통근환경은 결혼 후 현재의 삶을 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결혼 후 여성 근로자의 삶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데 있어 통근환경이 유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대중교통 만족도와 결혼 및 출산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특성에서는 근무지역과 근로시간이 유의하였는데, 2021년 기준 사업체와 종사자가 서울시의 21.6%, 29.3%에 달하며, 양질의 일자리와 각종 편의 시설이 밀집(유기현 2023)해 있는 강남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근무할 때 DINK 의향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은 높은 임금과 더불어 사회적 지위에 대한 평가도 높다(경향신문 2023)는 점에서 결혼 후에도 현재의 경제적 여건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의사가 이와 같은 결과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 후 출산은 경력단절과 근로소득 감소의 위험성을 높인다(김영옥 1999; 민연경, 이명석 2013; 박정열, 손영미, 오세숙 2014; 원숙연, 최윤희 2018)는 점도 이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시간은 기존 연구(손지현 2020)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주 5일 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이 지켜질 때 결혼 후 출산 의향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DINK보다 출산 의향이 높아졌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상태 등을 고려할 때, 건강 상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할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 및 여건이 증대되면서 본인만의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김도희 서원석, 202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여가시간이 충분하고, 여가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수록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재정적인 여유 및 만족감이 여가활동 가능성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의 과정 안에서 본인의 능력을 통한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느끼게 되면 출산 의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신 및 출산을 사회적 성취와 개인적 만족과 비교하여 높은 기회비용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의 여대생 대상의 조사에서 결혼과 출산보다 고등 교육을 받고, 본인의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oros 2017).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의 탈피, 자아실현의 욕구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여성의 인식 변화가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별 요인

소득수준모형(하위소득, 중위소득, 상위소득모형)의 분석 결과를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미혼 여성 근로자의 DINK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표 4〉 참조).

개인특성의 경우 소득과 부채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가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소득 여성 근로자는 부채가 많아질수록 결혼 후 비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 미혼 가구의 결혼 후 DINK에 대한 인식은 주로 중위소득 근로 여성에게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 및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려동물 소유 여부는 상위소득 계층에게서 출산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동물과 인간의 상호교감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준다(Hiroko and Tanji 2010; 문영희,

김효정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한 상위소득 근로 여성은 반려동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 추구 성향이 높게 나타나며, 결혼 후 출

산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거환경 측면에서는 대체로 비아파트 거주가 DINK 의향을 높이는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점유

표 4 소득수준모형 실증분석 결과

변수		하위소득모형		중위소득모형		상위소득모형	
		Coefficient	Odds	Coefficient	Odds	Coefficient	Odds
개인 특성	거주기간	0.014	1.014	-0.009	0.991	-0.006	0.994
	1인가구	0.512	1.669	0.879***	2.408	-0.177	0.838
	반려동물	0.171	1.186	-0.036	0.964	-0.657**	0.509
	가구부채	0.584*	1.793	0.041	1.042	0.185	1.203
	가구소득	0.021	1.021	0.041	1.042	-0.066	0.936
	학력	-0.246	0.782	0.309	1.362	-0.112	0.894
	연령	-0.012	0.989	-0.007	0.993	0.020	1.020
주거환경 특성	단독	-0.298	0.742	0.467**	1.595	0.380	1.462
	연립 등	0.967***	2.630	0.273	1.314	0.525*	1.690
	아파트	Reference					
	자가	-0.509	0.601	-0.335	0.715	-0.729**	0.483
	월세 등	0.090	1.094	-0.056	0.945	-0.219	0.803
	전세	Reference					
	가격	0.134	1.143	-0.018	0.982	0.502**	1.652
	공원녹지	0.156	1.169	-0.002	0.998	-0.095	0.909
	문화시설	-0.081	0.922	0.048	1.049	0.326	1.385
	보행환경	0.348	1.417	-0.114	0.892	0.081	1.084
교통통근 특성	야간 안전	-0.338**	0.713	-0.027	0.973	-0.422***	0.656
	버스	0.151	1.163	0.309**	1.362	0.328	1.388
	지하철	-0.101	0.904	0.047	1.048	0.080	1.084
	교통약자	-0.247	0.781	-0.333***	0.717	-0.067	0.935
	통근시간	-0.032	0.968	-0.271	0.762	0.493*	1.637
	통근환경	0.065	1.067	-0.053	0.949	0.460**	1.584
근로 특성	통근지역	-0.802**	0.449	-0.487**	0.615	-0.478	0.620
	근무지역	0.377	1.458	0.366*	1.443	-0.274	0.760
	근로시간	-0.915***	0.401	-0.265	0.767	-0.600**	0.549
여가 특성	직업만족	0.244	1.276	0.171	1.186	-0.305	0.737
	여가시간	0.345	1.412	0.308*	1.361	0.470	1.600
	여가생활	0.124	1.132	0.146	1.158	0.187	1.206
	건강상태	-0.109	0.897	-0.109	0.897	-0.033	0.967
성취 특성	재정상태	-0.180	0.835	0.098*	1.103	0.347***	1.415
	계층이동	0.016	1.016	0.149	1.160	0.648***	1.912
	사회성취	-0.033	0.967	0.188**	1.207	0.185	1.204
N		301		808		343	
Log-Likelihood (Intercept-only)		-173.044 (-203.947)		-497.657 (-551.119)		-185.074 (-233.944)	
Pseudo R ² (Nigelkerke)		0.250		0.167		0.333	

주: ***p<0.01, **p<0.05, *p<0.1.

형태는 상위소득 계층이 전세보다 자가에 거주할 때 DINK 의향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양호한 주거 환경을 갖춘 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비해 비용이 과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강정희 2010). 이러한 결과는 상위소득 여성 근로자는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므로 점유 유형에 영향을 받고, 하위와 중위소득 근로자는 점유 유형보다는 주택 유형이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에서 최저주거기준의 미달 여부가 중요하다는 점에서(김용창, 최은영 2013), 보편적으로 아파트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식되는 연립 등에 거주할 때 DINK 의향이 높아짐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위소득 계층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에 거주할수록 결혼 후 비출산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야간활동의 안전성은 하위와 상위소득 계층에서 결혼 후 출산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중위소득 계층의 경우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소득수준 계층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버스와 같은 통근교통 만족도와 교통수단 약자 배려 수준과의 DINK 의향 관계를 소득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든 모형에서 동일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유의성은 중위소득 계층에게서만 나타났다. 반면 통근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데, 먼저 통근 시간과 통근환경 만족도는 유일하게 상위소득에서만 유의했다. 그러나 하위소득과 중위소득 계층에게서는 통근 시간이 아닌 통근지역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 계층별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주근접의 개념을 차별적으로 적용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근로 특성을 살펴보면, 근무지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강

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근무할 때 비출산 의향이 커지는 것은 중위소득 계층이었다. 근로시간은 대체로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짧을수록 DINK 의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시간이 충분할수록 DINK 의향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중위소득 계층에게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재정 상태의 경우 중위소득과 상위소득 계층에게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취특성 가운데 본인의 계층이동 가능성은 상위소득, 사회 성취에서 본인 노력의 중요성은 중위소득에서 유의하였다. 특히 상위소득에서 본인 계층이동 가능성 변수의 승산비가 높게 나타나 상위소득 여성 근로자의 결혼 후 출산 의향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여성의 결혼 이후 비출산(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미혼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결혼 후 출산 의향에 관한 영향요인을 소득수준별로 확인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로자일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이러한 경향을 더 보였는데, 미래 소득향상에 대한 기대 및 가능성이 그와 같은 결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존 연구를 통해 가계부채는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는데, 본 연구 역시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채가 DINK 의향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자가 거주 여부가 DINK 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유 유형은 상위소득, 주택 유형은 하위와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에서 DINK 의향에 유의하게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넷째, 생활의 안전성 및 배려가 DINK 의향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특히 안전성은 하위와 상위소득에서, 배려는 중위소득에서 더 유의하게 나타나 소득계층별로 느끼는 생활 편의성과 그에 따른 출산 의향은 차별적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근로조건과 관련해 통근 여건 및 근로시간이 만족스러울 때는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지만,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양질의 직업에 종사할 때 오히려 DINK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간 빈곤이 출산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과 양질의 일자리가 DINK 의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워라밸이 지켜지고(충분한 여가시간 및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의 충족), 재정적 만족, 사회적 성취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DINK 의향이 나타났다. 해당 요인들은 하위소득에서는 유의하지 않고, 중위 및 상위소득 유형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일과 여가의 균형,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과 사회적 성취가 개인의 삶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상의 변화는 앞으로 DINK 가구가 일반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산을 통해 느끼는 가족의 유대감 및 행복감이 개인의 발전과 자유의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도달할 때, 사회적으로 비출산 의향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미혼 여성 근로자의 일과 출산의 병행이 쉽지 않고, 출산 후 일자리 보존에 대한 어려움은 결혼 후 비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긴 출퇴근 및 업무시간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는 출산 정책에 있어 직주근접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양질의 직업이 출산 후에도 잘 유지됨과 동시에 근로시간의 조절을 더욱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을 두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더불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적 주거정책을 통해 미혼 여성 근로자의 DINK 의향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구는 자가 거주를 할 수 있는 방안, 저소득 가구는 해당 세대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한도액의 상향과 더불어 거주기간 연장 자격을 자녀 출산 여부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한계와 보완점도 존재한다. 우선 서울시 거주 미혼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결혼 후 비출산 요인을 좀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의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결혼 후 비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요인들을 실증분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다양한 위계적 특성이 DINK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고려한 분석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2023 서울서베이에서 DINK 의향과 관련한 문항이 처음 신설되었는데, 향후 누적된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결혼 후 비출산에 대한 장기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본 연구가 보완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References

1. 강상준. 2023. 청년세대 복지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평등 인식과 이념 지형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8권, 4호: 49-56.
Kang Sangjun. 202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tudy on equality awarenes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that affects the youth generation's welfare attitude.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8, no.4: 49-56.
2. 강정희. 2010. 저소득층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성에 관한 연구: 부산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권, 2호: 249-274.
Kang Junghee. 2010. A study on housing status and stability of the low income group.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6, no.2: 249-274.
3. 경향신문. 2023. 서울 일자리 30%가 강남3구에... "우리는 여전히 강남 간다". 10월 5일, A4.
The Kyunghyang Shinmun. 2023. 30% of Seoul's Jobs Concentrated in Gangnam 3 Districts: "We Still Go to Gangnam", October 5, A4.
4. 김도희, 서원석. 2020. 대규모 교외형 복합상업시설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시공간 영향. *GRI연구논총* 22권, 3호: 29-48.
Kim Dohee and Seo Wonseok. 2020. Space and time effects of large-scale suburban commercial facility on apartment prices. *GRI Review* 22, no.3: 29-48.
5. 김동현, 전희정. 2019. 신혼가구의 주택마련방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주택점유형태의 매개효과를 고려하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1권, 1호: 37-66.
Kim Donghyun and Jun heejung. 2019. The effect of housing finances sources on fertility rate among newly-married households: considering the mediating effect of housing tenure.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1, no.1: 37-66.
6.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권, 2호: 113-137.
Kim Sahyun. 2009. The effect of female worker's working conditions on fertility. *Social Welfare Policy* 36, no.2: 113-137.
7. 김순귀, 정동빈, 박영술. 2012.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Kim Soonkwi, Jeong Dongbin and Park Youngsool. 2012. *Understanding Logistic Regression and its Applications Using SPSS*. Seoul: Hannarae Academy.
8. 김순귀. 2022.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 서울: 교우사.
Kim Soonkwi. 2022. *Understand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eoul: Kywoosa.
9. 김영옥. 1999. 여성취업력의 동태적인 변화 분석.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Kim Youngock. 1999. *A Dynamic Process Study on Women's Employment History*.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0. 김용창, 최은영. 2013.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대한지리학회지* 48권, 4호: 509-532.
Kim Youngchang and Choi Eunyoung. 2013.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1995~2010).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48, no.4: 509-532.
11. 김준일. 2021.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출산율과 환경에 대한 연구: 예비적 분석. *노동정책연구* 21권, 3호: 89-113.
Kim Joonil. 2021. A research on fertility rate and environment us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big data: a preliminary analysis.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1, no.3: 89-113.
12. 김태완, 이경재, 이상우. 2024. 경제성장과 지역 격차가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국토연구* 121권: 3-21.
Kim Taewan, Lee Kyungjae and Lee Seongwoo. 2024. The impact of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disparity on the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21: 3-21.
13. 김현동. 2021. 여성배우자 전업주부여부와 종사상 지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8권, 1호: 48-74.
Kim Hyondong. 2021.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married women's housewife and employment status on childbirth. *Journal of Social Science* 28, no.1: 48-74.
14. 김혜진, 서원석. 2022. 도시공간 특성에 따른 인구소멸 위험과 미분양이 지역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분석* 8권, 1호: 23-40.
Kim Hyejin and Seo Wonseok. 2022. Impacts of population extinction risk and unsold new housing on regional housing prices according to urban spati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Real Estate Analysis* 8, no.1: 23-40.
15. 류시균. 2008. 로짓모형에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26권, 1호: 113-126.

- Ryoo Sikyun. 2008. Effects of multicollinearity in logit mod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26, no.1: 113-126.
16. 문영희, 김효정. 2011. 반려동물이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권: 455-477.
Mun Younghee and Kim Hyojung. 2011.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 on quality of life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7: 455-477.
17. 민연경, 이명석. 2013. 지방자치단체 특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5권, 3호: 365-386.
Min Younkyoung and Lee Myungsuk. 2013. A study on the influence of local government characteristics on the fertility: Focused on 66 primary local government of metropolitan area. *GRI Review* 15, no.3: 365-386.
18. 박관태, 전희정. 2020.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출산율 차이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비교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권, 4호: 67-99.
Park Kwantae and Jun Heejung. 2020. Population size and fertilit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large cities, medium and small-sized cities,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32, no.4: 67-99.
19. 박서연. 2019. 신혼부부의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HLM을 활용한 신혼부부의 주거특성과 지역특성을 중심으로. *지역연구* 35권, 1호: 59-72.
Park Seoyeon.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newlyweds' birth plan: focused on newlyweds' housing and residential area characteristics using HLM.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35, no.1: 59-72.
20. 박정열, 손영미, 오세숙. 2014. 시간제 여성 임금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 유형에 따른 시간 사용과 심리적 특성. *여가학 연구* 12권, 1호: 79-105.
Park Cheongyeul, Sohn Youngmi and Oh Saesook. 2014. Time us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art-time female paid workers by the typology of work-life balance. *Journal of Leisure Studies* 12, no.1: 79-105.
21. 배호중,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권, 3호: 204-238.
Bae Hojoong and Han Changkeun. 2016. Newly married couples' housing assets and childbirth: Focusing on the households married since 2000.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 no.3: 204-238.
22. 서원석. 2019. 대도시권 주거이동 가구의 이동유형별 주거 특성 및 주거만족도 비교분석. *GRI 경기논총* 21권, 1호: 49-69.
Seo Wonseok. 2019. Analyzing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and satisfaction for intra-metropolitan migrants by residential mobility patterns. *GRI Review* 21, no.1: 49-69.
23. 손지현. 2020.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혼남녀의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47권, 1호: 169-195.
Son Jihyun. 2020. The effects of the 52-hours workweek policy on fertility intention of married men and women. *Social Welfare Policy* 47, no.1: 169-195.
24. 원숙연, 최윤희. 2018.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 요인: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231-268.
Won Sookyeon and Choi Yoonhee. 2018.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ing on factors related to the cost for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27, no.3: 231-268.
25. 유기현. 2023.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의 한계 및 정책방향 연구. *공공사회연구* 13권, 4호: 55-89.
Ryu Kihyun. 2007.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policy direction of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Seoul. *Journal of Public Society* 13, no. 4: 55-89.
26. 유동균, 정현. 2022. 생활권 내 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통접근성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113 권: 75-95.
You Donggyun and Jeong Hyun.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living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Moderating the effect of traffic accessibility. *The Korea Spatial Planning Review* 113: 75-95.
27. 유진성. 2023.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Yoo JinSung. 2023. *Estimation of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GDP and Implications*. Seoul: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28. 이다은, 서원석. 2019.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빈곤 특성요인 분석. *주거환경* 17권, 4호: 75-89.
Lee Daeun and Seo Wonseok. 2019.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poverty affecting marriage and childbirth. *Journal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stitute of Korea* 17, no.4: 75-89.

29. 이다은, 서원석. 2021.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22권, 1호: 1-15.
Lee Daeun and Seo Wonseok. 2021.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Seoul Studies* 22, no.1: 1-15.
30. 이다은, 오지영. 2024.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비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중심으로. *토지주택연구* 15권, 1호: 23-38.
Lee Daeun and Oh Jiyoung. 2024. Comparis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public rental housing type: Focusing on failing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Land and Housing Review* 15, no.1: 23-38.
31. 이소영, 윤지영, 최혜진. 2018. 노인복지관의 역할 인식과 재이용 의사: 경기도 N시 노인복지관 인근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3권, 4호: 251-264.
Lee Soyoung, Yoon Jiyoung and Choi Hyejin. 2018. The role cognition of senior welfare center and decision to reuse: Focus on the senior citizen near gyoung-gi n city senior welfare center.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Wellness* 13, no.4: 251-264.
32. 이윤석, 이지영, 이경택. 2008. 온라인 조사의 응답오차에 대한 연구: 설문 응답 시간과 응답 성실성의 관계. *조사연구* 9권, 2호: 51-83.
Lee Yunsik, Lee Jiyoung and Lee Kyoungtaeg. 2008. Amount of responding times and unreliable responses at online surveys. *Survey Research* 9, no.2: 51-83.
33. 이휘정, 김경민. 2022. 도시환경이 여성의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권, 4호: 459-473.
Lee Hweejung and Kim Kyungmin. 2022. A study on the urban environment affecting fertility intentions of women in Sejong City.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28, no.4: 459-473.
34. 장덕현, 조성겸. 2017. 리커트형 척도의 중간점은 필요한가?: 중간점이 있는 척도와 없는 척도 간 측정 결과 비교. *조사연구* 18권, 4호: 1-24.
Jang Deokhyun and Cho Sungkyunm. 2017. Is the mid-point of a likert-type scale necessary?: Comparison between the scales with or without the mid-point. *Survey Research* 18, no.4: 1-24.
35. 장유경, 김현주. 2021. 30-40대 딩크족 부부의 결혼유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 29권, 2호: 253-280.
Chang Yookyung and Kim Hyunjoo. 2023. A grounded theory study on the marriage maintenance process of DINK families in their 30s and 40s. *Family and Family Therapy* 29, no.2: 253-280.
3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 발표, 5월 3일. 보도자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2024. 2024 Results of the marriage·childbirth·parenting awareness survey announced, May 3. Press release.
37. 전중환. 2012. 현대 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권, 1호: 97-110.
Jeon Joonghwan. 2012. Evolutionary approaches to low fertility in modern societie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8, no.1: 97-110.
38. 전혜란, 전명진. 2020. 통근시간이 주관적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및 통근시간 가치 분석: 서울시 가구 유형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21권, 3호: 87-100.
Jeon Hyeran and Jun Myungjin. 2020. Analyzing effects of commuting time on subjective life satisfaction and its values by household type and gender for the Seoul Residents. *Seoul Studies* 21, no.3: 87-100.
39. 조선미, 임연규. 2021. 세대별로 본 '홀로 라이프': 생활시간조사와 여성 1인 가구의 삶. *KWDI 성인통계 리포트* 21-4.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Cho Sunmi and Lim Yeongyu. 2021. Generational differences in single life: A time use study of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KWDI Gender Responsive Statistics Report* no.21-4. Seoul: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40. 진은애, 진장익. 2017. 행복과 통근역설: 통근시간의 증가가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감소시키는가? *GRI 연구논총* 19권, 3호: 51-68.
Jin Eunae and Jin Jangik. 2017. Happiness and commuting paradox: does increasing commuting time reduce happiness? *GRI Review* 19, no.3: 51-68.
41. 최효미, 이정원, 조미라, 우석진, 김태우. 2023. 영유아 가구 양육비 및 육아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KICCE 소비실태조사 II).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Choi Hyomi, Lee Jeongwon, Cho Mira, Woo Seokjin and Kim Taewoo. 2023. *A Study of Childrearing Costs and Demand for Chilcare Services (KICCE Spending Survey II)*.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2. 통계청. 2024. 2023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대전: 통계청.
Statistics Korea. 2024. *Birth and Death Statistics for the 2023 Population Trend Survey*. Daejeon: Statistics Korea.
43. 함선유. 2020. 부자 부모와 가난한 부모: 자녀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계층 차이. *보건사회연구* 40권, 2호: 387-415.
Ham Sunyu. 2020. Rich parent, poor parent: Differences in the parenthood effect on income across the wage distributio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 no.2: 387-415.
44. 홍세희. 2019. 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경기: 교육과학사.
Hong Sehee. 2019. *Binary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Gyeonggi: Kyoyookbook.
45. Becker, G. S. and Robert, J. B. 1988.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 no.1: 1-25.
46. Cohen, J., Cohen, P., West, S. and Aiken, L. 200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47. Galor, O. and Weil, D.N. 1996. The gender gap, fertility, and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6, no.3: 374-387.
48.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no.3: 323-346.
49. Hiroko, T. and Tanji, H. 2010. A comparison of diabetes self-care ability scores among inhabitants of urban and rural areas and a group of company employe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Sciences* 14, no.1: 86-97.
50. Hosmer, D. W. and Lemeshow, S. 2000. *Applied Logistic Regress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51. Howell, Nancy. 1976. The population of the Dobe area (Kung). In *Kalahari Hunter-Gatherers: studies of the !Kung San and Their Neighbors*, eds. Lee, R. and DeVore, I., 137-151. M.A.: Harvard University Press.
52. Kooros, M. M. 2017. Rapid decline of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Cause and consequences. *Open Journal of Social Sciences* 5, no.7: 42-55.
53. Krosnick, J. A. 1991. Response strategies for coping with the cognitive demands of attitude measures in surveys. *Applied Cognitive Psychology* Vol. 5: 213-236.
54. Lee, B. S. and McDonalds, J. F. 2003. Determinant of commuting and distance for Seoul residents: The impact of family status on the commuting of women. *Urban Studies* 40, no.7: 1283-1302.
55. OECD. 2024. *Society at a Glance 2024: OECD Social Indicators*. Paris: OECD Publishing.
56.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Paris: OECD Publishing.

- 논문 접수일: 2024. 9. 26.
- 심사 시작일: 2024. 10. 31.
- 심사 완료일: 2025. 1. 17.

요약

본 연구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서울에서 거주하며 취업 활동을 하는 미혼 근로 여성의 소득수준별 결혼 후 비출산(DINK) 의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인 가구 여성 근로자일 경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채가 DINK 의향에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와 자가 거주 여부가 DINK 의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유 유형은 상위소득, 주택 유형은 하위와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에게 유의하게 작용하였다. 넷째, 생활의 안전성 및 배려가 DINK 의향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다섯째, 통근 여건 및 근로시간이 만족스러울 때는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아졌지만, 중위소득 여성 근로자가 양질의 직업에 종사할 경우 오히려 DINK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섯째, 워라밸, 재정적 만족, 사회적 성취와 계층이동의 가능성은 중위 및 상위소득 미혼 여성들의 DINK 의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년 출산 가구에 대한 폭넓은 지원, 출산 후 양질의 일자리 보존, 근로시간의 유연성, 주거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출산, 딩크, 근로여성, 미혼여성, 소득격차, 이항로지스틱모형
-

